목회자 칼럼

아버지 아버지 우리 아버지

정한조 목사

오늘날을 부권 상실의 시대라고 부른다. 그만큼 아버지의 역할이 작아진 것이다. 악트마이어는 "많은 남자들이 자신의 가정을 되돌아보고 가족에게 다시 돌아가려고 하지만 가족들은 이미 오래 전에 그 사람이 없이도 살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해 버렸음을 발견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은 아버지의 존재와 역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지난 1월 13일, 금세기 최고의 스포츠 영웅이라 불리는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이 모든 팬들의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은퇴를 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또 다른 인생에서의 도전, 즉 좋은 아버지로서의 역할이야말로 충분히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기에 최절정기의 순간에 은퇴를 결심했다"고 피력했다. 그는 회견이 있던 그날 아침에도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었고, 회견이 끝난 뒤에도 아이들을 데리러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한 해를 뛰면 1,000억을 번다고 한다. 그에게 자녀들은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93년에 조던은 은퇴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아버지의 갑작스런 사고로 인한 죽음 때문이었다. 그만큼 그에게 가족은 소중한 것이었다.

나에게도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있다. 15년 전, 재수를 처음 할 때의 이야기이다. 나는 집에 있는 조그만 다락에서 공부를 하였다. 어느 날 학원에서 돌아왔을 때, 다락에 있는 의자에 무슨 글자가 몇 자 기록되어 있었다. 그것을 읽고 눈물이 핑 돌고 말았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고생의 의자"

아버지께서 써 놓으신 것이었다. 재수를 하는 아들이 안돼 보였던 모양이었다. "비록 1년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는 아버지의 격려였다. 평소에 아들의 행동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를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으셨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진하게 느낄 수 있었다. 그 1년은 나에게 있어서 그 어느 해보다도 소중한 한 해가 되었고 신앙적으로 인격적인 깊은 성숙을 가져다 주었다.

성경을 읽다가 솔로몬에 대해서 새롭게 깨달은 사실이 있다.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까"라고 물으셨을 때에 그가 떠올린 것은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었다.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하므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왕상 3:6)"

솔로몬에게 있어서 아버지 다윗은 언제나 성실하시고, 공의롭고, 정직한 마음의 소유자였던 것이다. 솔로몬은 오늘 자신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버지의 그늘 때문이었고, 또 아버지의 삶이 지혜를 구하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그에게 가장 소중했던 분은 아버지였던 것이다.

조던이나, 솔로몬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아버지는 소중한 존재이다. 비록 그 자리가 '고생의 의자'와 같은 자리라고 할지라도 그 자리가 없게 되면 다른 가족들은 편안하게 앉을 수가 없다. 이 땅의 지친 아버지들에게 외치고 싶다.

"아버지 파이팅!"

함께 즐거워 함께 울라

즐거워 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 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롬 12:15)

제17호 (격월간)
발행일 1999년 3월
발행처 주님의교회 출판부

주님의교회

(138-220)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50-4
(정신여중·고 교내)
주님의교회
T. 416-5181 F. 416-5180
인터넷 ID : http://www. Lord - church. or. kr

CONTENTS

1
아버지 아버지 우리 아버지/ 정한조 목사
2
사랑의 빚 / 이병식 장로
3
장애인과 늘 함께 하시는 주님! / 윤학병 집사
4~5
특집 / 십자가의 길
6
음치를 파바로티로 만드신 하나님 / 최충남 집사
이 분도 주님의교회
7
교회소식
교우동정
의학상식 / 유재학 집사
유머 한마디 / 형광등
8
발언대 / 최상용 집사
만화 / 김정희(청년2부)
그림이야기 / 조계현 성도
책 이야기 / 김성식 전도사

시론

사랑의 빚

이병식 장로(30구역)

로마서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빚은 지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나 사랑의 빚은 져도 좋다는 뜻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사랑의 빚은 오히려 지라고 권유하고 있는 듯하며 우리가 다 복음의 빚진 자라 했습니다. 이 복음의 빚이 대표적인 사랑의 빚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갚지 못하고 죽으면 자식이 이어 받습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사랑의 빚을 짊어지고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부모로부터 원초적인 사랑의 빚을 지고 생애를 시작하는 것은 물론 태초에 하나님으로부터 택정받은 순간에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온통 사랑의 빚더미 위에 살고 있는 셈입니다.

일반적으로 빚은 갚으면 없어지지만 사랑의 빚은 갚으면 갚을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 사랑의 빚을 사랑으로 갚으면 그 사람은 그것을 또 빚으로 생각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랑으로 갚고, 그 사람은 또 갚고 하여 이 사회는 훈훈한 사랑의 산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빚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회이겠습니까?

1885 년 미국 선교사 알렌(Allen)에 의하여 왕립병원 광혜원이 서울에 세워지고, 10년 후인 1904년 세브란스(Sevrance)의 재정 지원에 힘입어 세브란스(Sevrance) 선교병원 및 의학교로 확충, 발전되었으며,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와 의료의 빚을 110여 년 동안 지고 있는 셈이지요. 우리에게는 이 사랑의 빚을 우리의 이웃에게 갚아 그 분들의 숭고한 뜻을 이어 나가야 할 의무가 지워 진 것은 변함 없는 사실입니다.

선교 역사 110여 년간 우리 나라가 많은 선교사를 해외에 파송하고 기도와 구제·헌신·봉사 등으로 미약하나마 이 뜻을 조금씩 실천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전세계에는 인구 20억, 13,000여의 미전도 종족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남아메리카, 동구권 등에서 6,000여 명의 우리 선교사가 온갖 어려움과 위험을 무릅쓰고 기도와 눈물과 땀으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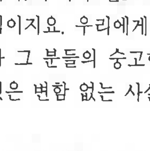
사랑의 빚 갚음 운동이지요.

이런 의미에서 10여 년 전부터 인도네시아 Kalimantan(보르네오)에 100여 병상의 병원을 짓고 초·중고등학교, 신학교, 간호학교 및 농촌지도자 훈련원 그리고 100여 곳의 교회와 기도처를 개척하여 총체적 선교기지로 육성하고 있는 Agape 선교회의 사역은 훌륭한 사랑의 빚 갚기 운동의 하나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선교 모델인 "가르치며 전파하며 고쳐 주며"를 실천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가 활성화되면, 현지에서 양성된 목사와 간호사 그리고 각급 지도자들을 통하여 이슬람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이 지방 주민의 질병을 퇴치하며, 나아가 아시아 지역 한국 선교사들의 요양기관과 총체적 종합신교지로 육성하여 우리 나라에 복음과 의료를 처음 전해 준 이들의 뜻을 조금이나마 이어 가게 될 것입니다.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사 우리와 함께 삶의 기쁨과 고통을 체휼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한 번 더 묵상하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진 사랑의 빚!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의 빚은 평생토록이라도 다 갚지 못할 것이기에 천국에까지 가서라도 하나님 찬양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편지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교우님들께

임혜현 집사(37구역)

번서 서는 우리 교회같이 좋은 교회에서 신앙 생활을 하게 돼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답니다. 저 말고 다른 정립 식구들도 같은 생각일 줄 압니다. 음으로 양으로 저희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쏟아주셔서 저희에겐 힘과 용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과거 저희들이 신앙 생활을 할 때 교회 출입이 원활치 않아 갈등하며 망설였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많은데 몸이 불편한 저희들이 마음놓고 다닐 수 있는 교회는 흔치 않았답니다.

최근 목사님의 설교처럼 교회는 누구나 마음놓고 다닐 수 있는 보편적인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상급이 준비돼 있으리라 봅니다. 아무쪼록 올해에도 바라기는 지금처럼 저희들이 여러분과 함께 신앙 생활을 해 나갈 때 변함없는 애정을 가져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나친 친절과 시선보다는 저희가 요청할 때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또한 나보다 연약한 형제 자매가 있다면 도움을 줄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교우님들 올 한 해도 힘겨운 고비마다 하나님의 능력 아래 모두 잘 극복하시고 형통의 한 해가 되기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영육간에 강건하시고요.

주 안에 지체된 임혜현 드림

간증

장애인과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윤학병 집사(36구역)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눅 8 : 39)

'90년대 초 강원도 장애인종합복지관장으로 장애인 재활사업과 처음 인연을 맺은 후 근 십년 만에 새로 개관되는 서울시립북부장애인 종합복지관장으로 부임한 것은 1997년 10월이었습니다. 신설복지관이라 건물만 덩그렇게 서 있을 뿐 운영요원도 기본 장비도 없는 황량한 광야와 같았습니다.

당장 '98년 초에 개관식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여야 하나 모든 준비가 부족하였고, 그중에서도 사업계획을 짜고 관운영을 담당할 전문요원들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다행히 건물 관리를 위하여 시청에서 고용원 1명(뇌성마비 장애인)을 배치해 주었고, 수탁법인인 한국지체장애협회(중앙회장 : 장기철) 전 직원들이 협조해 주어 일에 착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부족한 믿음 속에 있는 몸이지만, 이 일은 내 힘으로만은 도저히 되지 않을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복지관 일로 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점차 늘어가는 것을 느끼게 된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우선 장애인 복지계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직원 추천을 부탁드리고 채용 공고도 해보았으나 워낙 연말에 가까운 시점이라 마땅한 사람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전문요원들의 영입을 추진하는 한편, 6억 원에 가까운 재활장비(주로 외국제품)를 구입하는 일에 착수하였습니다.

정부의 예산회계 규정에 따라 '97년 중으로 구입하지 못하면 부득이 다음 연도로 예산이월을 해야하고, 그렇게 될 경우 예산확보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연내에 계약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입찰에 부친 결과 국내에서는 의료기기 납품 실적이 가장 많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한숨을 돌리는가 했습니다만 뜻하지 않은 외환위기로 환율 900:1 기준으로 계약한 장비가격이 1900:1까지 뛰는 환란이 왔고, 낙찰업체로부터 납품이 어렵다는 연락이 왔을 때가 가장 암담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가장 열심히 기도한 날들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서울 북부지역 장애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준비는 이미 완벽하게 짜여져 있다는 것을 그때는 미처 느끼지 못하였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98년 2월 27일 개관일에 맞추어 인력, 장비들을 계속 보내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서울에서뿐만 아니라 광주(전남), 강릉, 원주, 안동, 안산, 부천, 충주 등 전국 각지로부터 복지관 업무에 꼭 필요한 인재들이 마치 떠났던 자기 자리를 찾아오듯 모여 들었고, 걱정 했던 장비납품도 낙찰업체 사장님으로부터 20년 전통을 가진 자기 회사의 명예를 걸고 전량 납품해 주시겠다는 확약을 받았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는 동안 제가 섬기는 주님의교회 36구역 식구 중 김기웅·김은희·박동해 세 분 집사님이 저와 함께 일하시게 된 것은 우리를 아껴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주님의 큰 은총이라 생각합니다.

사회와 가정, 국가가 일찍이 없던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도 우리들은 별 어려움 없이 신우회 모임을 만들어 개관 감사 예배를 신철범 목사님 축복 아래 드리게 되었고, 예정일인 2월 27일을 넘기지 않고 복지관을 개관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장애인들과 우리 직원들을 사랑해 주시는 변함 없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믿습니다.

개관 이후 복지관의 나날은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은총의 시간들입니다. 복지관이 있는 노원구는 등록장애인만 7,5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전국 제일의 장애인 밀집지역이며, 그중 삼분의 일 이상이 생활보호대상자인 극빈 장애인 거주지역입니다. 물론 복지관의 임무가 장애인에게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활기관이며, 구호기관은 아닙니다만 이 지역 영세 장애인들은 조석이 막막한 처지로 구호의 손길이 아쉬운 분들이 많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운영되는 복지관이 이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로 모든 직원들이 안타까운 마음만 갖고 있었습니다만 인근 교회 성도님들을 비롯하여 각계 각층의 자원봉사자들이 반찬을 마련해 오시고, 김장 지원으로, 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가사지원 도우미로 열심히 봉사하시는 것을 볼 때, 언제나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관장인 저도 모르는 곳에서 얼굴도 모르는 많은 분들이 이 시간에도 불편한 이웃을 위하여 자기 시간과 노력과 재물을 아낌 없이 나누고 있는 사랑의 현장이 노원구뿐만 아니라 인근 도봉구, 의정부 남부 지역 등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1차년도 사업을 무사히 마치고 2차년도 사업 추진을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교육이나 치료에서조차 소외되고 있는 중증장애어린이를 위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발을 움직이는 것조차 불편해 하고 식사나 용변을 전부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해결할 수 있는 중증장애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치료하며 교육시킬 수 있는 통합보육 시설은 아직까지 우리 나라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 복지관에서 처음 시작해 보려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그 동안 우리 복지관에 두 번 왔고, 지금은 하나님의 품속에서 안식하고 있을 정민 군이 우리에게 주고 간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다행히 그 동안 서울시에서 긍정적으로 처리하여 복지관 장소사용 허가를 이미 받고 시설 개수자금으로 3천 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으며, 「장애아 전담보육원」개설이 승인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 복지관은 관장 이하 모든 직원들이 「믿고 기도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굳은 신념으로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하루하루를 보내기 위하여 모든 지역 장애인들과 같이,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굳게 나아가려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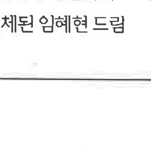
많은 성도님들께서 지켜 봐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특집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

강정호 목사

주님의 십자가의 길은 예루살렘 성내의 로마군 주둔지인 안토니오 요새로부터 시작됩니다. 안토니오 요새에서 총독 빌라도의 심문과 채찍질과 조롱으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박히시기까지 모두 열 네 군데의 흔적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95년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로 가질 수 있었던 성지순례 코스 중, 그 어느 곳보다 주님의 체취를 깊숙이 느낄 수 있었던 곳은, 바로 주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끝내는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신 흔적이 남겨져 있는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 열 네 곳 한 곳 한 곳을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는 순간 지금까지 듣기만 하여 상상 속에만 갇혀 있던 주님의 십자가 고난이 지금 눈앞의 현실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쓰러질 때마다 로마 군병에게 채찍질과 발길질을 당하셨고,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웃음과 야유를 당하셨습니다. 그 열 네 곳 한 곳 한 곳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신 모든 길 위에 나를 위하여, 온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한 주님의 진한 사랑이 배어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실사 내가 찾았던 지금 주님의 흔적이 주님 당시의 그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바로 이 하늘 아래, 이 공간에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 그 모욕과 채찍질을 당하시고 힘에 겨워 거듭 쓰러지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언덕길을 올라가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나 같은 자를 위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감당하기 어려웠고 이때문에 가슴 속 깊은 데서부터 솟구치는 감격과 눈물을 주체하기 어려웠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는 과연 주님을 진정 사랑하기나 하는지, 나도 주님을 위해 조롱과 모욕과 채찍질을 기쁘게 당할 수 있는지, 죄스러움과 부끄러움이 앞섰습니다.

십자가는 분명 고난의 길이요 죽음에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죽음은 훗날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요, 죽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선택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낮아지고 작아지신 주님을 다시 살리셔서 높이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가 기꺼이 마셔야 할 잔입니다. 거듭난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가 먼저 맛보아야 할 죽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기를 원하는 우리가, 이 사회에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가 기꺼이 감당해야 할 고통이고 손해이고 희생이고 양보입니다.

우리 사회는 자신의 몫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려는 사람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자신의 권익을 포기하고 양보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겠지만, 그러나 이 때문에 우리 사회는 갈라지고 멍이 들고 있습니다.

주님의 뒤를 따르노라고 다짐하는 우리들이 먼저 자신의 권익을 양보하고 희생하고 손해를 감수하자고 한다면 그것은 세상을 너무도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수시로 기도하는 우리가 실제로 그를 위하여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실천한다면 그것은 순진하고 어리석은 일이 될까요?

희생과 손해와 양보 없이 십자가를 질 수 없고, 십자가 지는 일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수 없고, 십자가 없이 훗날의 부활과 영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짐 없이 주님 안에서 거듭 태어남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길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를 짐으로써 주님을 따르기 원하는 우리들을 또한 높이시고 영화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집

오만한 자의 자리

주미숙 집사(64구역)

시편 1편 1절을 대할 때마다 저는 악인의 길이나 죄인의 길에 선 적은 많으나, 오만한 자의 자리는 차지하지 아니하였다고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사람에게보다 하나님께 대해 오만한 자의 자리를 차지했었음을 고백하려 합니다.

저는 성인으로 인정 받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조용한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그 시끄러운 삶만큼 종교관마저 혼탁하여 갈피를 못잡고, 사람 따라 환경 따라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다 하나님과 다시 해후하게 된 것은 약 7년 전입니다.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확실히 알 때쯤 제게 신체적인 변화가 왔습니다. 왼쪽 가슴에 멍울이 만져진 것이었습니다. 조직검사 후 암이란 진단을 받고 나니 괜히 울어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우는 척했습니다.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는 모두 우는 것을 보았으니까요. 그러나 속으로는 왠지 모를 두근거림과 자그마한 흥분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신앙심이 깊어서도, 믿어지지가 않아서도 아닌 조그마한 설레임이었습니다. 난 아직 젊은데, 아직 능력이 있고 할 일이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이런 병에 걸리게 한 것은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여겨졌습니다.

다른 분들의 정성 어린 기도는 한없이 이어졌지만 정작 저 자신은 기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말씀 드려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수술 전날 덜컥 겁이 났습니다. 전에도 마취 사고 경험이 있었기에 이러다 죽으면 어쩌나, 그런 후 만약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모른다 하시면, "네가 누구냐?" 하시면 난 어떻게 해야 하나, 죽음보다 더 엄청난 공포였습니다. 침대에서 무릎 꿇은 채 기도 드렸습니다. 너무도 짧게 '하나님, 살려 주시면 공부하겠습니다' 라고요. 그땐 공부의 의미를 깊게 생각하고 드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술 전 목사님께서 시편 139편의 말씀으로 제게 평안함을 주심으로 온전히 주께 의탁 드린다며 감사함으로 수술실로 향하였습니다. 진정한 평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수술실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가슴을 절개 후 암세포를 찾아보았으나 보이질 않았던 것입니다. 집도의는 너무도 놀랐습니다. 물론 저 자신도 반신반의하였습니다. 간호사의 직업을 20년 가까이 한 저도 오진이 아니었을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정말일까?

그러한 궁금증과 의혹을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제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퇴원 후 첫 정기검사때 모니터에 조직검사 결과가 암이라고 나타났습니다. 그때의 담당의사의 얼굴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모니터 한 번, 제 얼굴 한 번, 이렇게 반복하여 보시며 당황해 하시던 모습을요. 그러나 이리저리 확인한 결과 그것은 수술 전날 밤 샘플을 떼어낸 것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수술 후의 결과는 감추시고 수술 전의 결과를 보여주시며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마치 도마의 믿지 않음에 예수님께서 만져보라고 하셨던 것처럼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치유의 손길에 흥분만 하였지, 그 진정한 사랑에 보답할 줄을 모른 채 다시 살았다는 생각도 잠시, 어영부영 시간을 보내다 문득 공부를 한다고 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무조건 장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겠다고 공부를 하였습니다. 계획도 목표도 없으면서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 약속 드린 것을 지킬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였습니다. 최종 시험을 보러 가던 날 시험장 근처에서 솟구쳐 오르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네가 미천하나 너는 나를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복음성가를 들으며 큰소리로 울었습니다. 저를 이곳까지 이끌어 주시고 깨끗다 여겨주시니,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앞으로 이러하게 살려는 저를 어여삐 여겨 주시는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불합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실감이 나질 않았으나, 시간이 흐르다 보니 화가 났습니다. 그런 중에 교회 내의 중보기도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찬송을 부르며 중보기도를 하면서 서서히 제 자신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만했던지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계획이 이러하오니, 이만큼 능력이 있으니 예전에 누리던 습성대로 직위와 명예를 가져야 그 일을 할 수 있으므로, 공부를 하려 했던 저의 추한 모습이 보였던 것입니다.

계단 위의 상전자리에 앉은 내 모습만 생각하고 계단 아래 앉거나 허리 구부릴 줄 몰랐던 제 자신이 보입니다. '저는 몸이 약해서 몸으로 하는 봉사를 할 수 없어요'라고 목사님께 말씀 드렸던 철 없던 제 모습은 다시 열려 주셔도 여전히 변화될 줄을 몰랐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 시험에 불합격 한 것에도 감사 드립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여전히 저를 사랑하여 주심을요.

저는 공부할 겁니다. 시험을 위한 공부가 아닌,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렵니다. 백수를 누린다 하여도 다 깨우치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 실수나 실패를 거듭할 때마다 하나님 사랑의 채근이었음을 기억하며, 한 귀절 한 귀절 그 뜻을 알고자 합니다. 언제나 살아 움직이는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는 그 말씀을 의지 삼아 살겠습니다.

'주님 저는 이렇게 살아갈 것이니 이렇게 도와주세요'라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주님이 가라시는 대로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올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기고

음치를 파바로티로 만드신 하나님!

최충남 집사(54구역)

지금 나의 작은 메모 일기장을 보니 그날이 1998년 9월 2일 오후 4시 30분경으로 되어 있다. 일기 제목은 '한국의 파바로티, 드디어 세계적인 그리스 야외극장 피타우로스에서 세계 각국의 관광 온 가수들과의 육성 노래 콘테스트에서 최고의 인기를 얻다 로 되어 있었다. 제목이 너무 길고 거창하여 혹시 이 글을 읽던 분들이 다 읽기도 전에 "뻥이야! 뻥!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란 말이냐?" 하고 끝까지 안 읽을지도 몰라 우선 주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건대, 이 사건은 지난 1998년 8월 30일부터 9월 4일까지 처와 함께 에베소를 비롯한 소아시아의 7대 교회가 있던 터키와 그리스 출장 및 관광 중에 일어났던 작은 에피소드 중의 한 사건이었다.

먼저 우리는 이스탄불에서, 터키에서 20년 이상을 살고 있는 선교사요, 사업가요, 정치학 박사인 김주찬 교수로부터, 그곳에 있는 노아의 방주, 욥의 무덤, 성모 마리아의 집, 누가의 묘, 밧모섬의 이야기와 7교회 등등을 생생히 보고 듣고 그리스로 갔으므로, 그 당시 가슴 속에선 잠시나마 사도 같은 기분이었고, 성령이 가슴 속에서 끓는 듯한 아주 좋은 컨디션이었다. 드디어 9월 2일 우리는 나와 20여 년간 친구요 바이어였던 Mr. Kostas와 같이 아테네 근교의 세계적인 명소를 두루 보고 오는 길에, 그 유명한 아이스킬로스의 비극 "공양하는 여인들"을 공연했고, 틈틈이 오케스트라와 음악을 연주하는 야외 음악당이자 극장인 그곳에 도착했다. 그곳은 아테네시에서 1시간 이상 떨어진 곳이며, 바로 옆에는 사도 바울이 군중을 모아 놓고 설교했던 큰 바위로 된 설교단도 있었다. 참고로 이 극장은 바닥이 자연 대리석으로 아주 잘 깔려 있었다. 방청석 높이도 약150미터 이상 높으면서 아테네의 올림픽 주경기장처럼 대리석으로 의자식 계단이 잘 만들어져 있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이크 없이도 자연적인 '공명시스템'이 되어 있어 150미터 이상 떨어진 밑바닥의 맨 앞의 스튜디오에서 아주 작은 동전 한 개를 떨어뜨리는 소리도 깨끗이 잘 들리곤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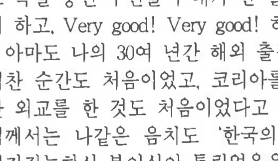
그때 우리 주변에는, 중년의 독일 관광객 그룹, 네덜란드에서 온 여대생 관광 그룹, 홍콩인 그룹, 이탈리아인 그룹, 스웨덴인 그룹 등 약100여 명 정도의 관광객이 시끌시끌 했었다. 그런데 갑자기 스튜디오 앞에서 카루소와 같은 '독일어'의 바리톤 소리가 멋있게 들리고 그 노래가 끝나자 그쪽 그룹들이 박수치고 소리지르고 야단이었다. 조금 있더니 또 네덜란드 여대생의 독창에 박수가 터져나왔다. 옆의 그리스인 친구인 Kostas씨가 드디어 날 떠다밀기 시작했다. 한국의 '파바로티'는 어디 갔느냐! 한 번 멋있게 뽑아라! 기회는 한 번뿐이다! 순간 나는 우리나라의 국위를 선양하고 순간적이나마 사도 바울의 성령을 입은 듯 용기가 났다. 나가자! 나가자! 그리고 부르자! 크게 파바로티보다 더 멋있게! 나는 우선 영어로 "I came from KOREA"라고 크게 소개했다. 나의 목소리가 너무 떨리고 있었던지 갑자기 분위기가 조용하더니 크게 박수가 터져 나왔다.

국제적인 관광객을 의식하여 '나 같은 죄인 살리신(Amazing Grace)'을 크게 불렀다. 갑자기 우뢰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오며, "Once more, Korean song, please!"가 크게 소리쳐 나왔다. 나는 순간적으로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나라 옛날 대중가요인 '사랑해'를 크게 불렀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냐? 갑자기 수십 명이 나를 따라 "애 애 애, 애 애 애 애 애, 애 애 애 애 ……"하고 끝도 없이 따라 하지 않는가? 스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었다.

노래가 끝난 후 네덜란드 여대생들이 사인 요청을 하며, 또 독일 중년 부인들이 내가 한 발자국 움직일 때마다 아는 척 하고, Very good! Very good! 하지 않는가?

아마도 나의 30여 년간 해외 출장과 여행 중 이렇게 가슴 벅찬 순간도 처음이었고, 코리아를 위해 이렇게 멋있는 민간 외교를 한 것도 처음이었다고 생각한다. 역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같은 음치도 '한국의 파바로티'로 변신시키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이 틀림없음을 느꼈다.

이 분도 주님의교회



몸으로 드리는 예배

정선일 집사(24구역)

국내 성극(聖劇)에서 혜성 같은 인물로 각광 받고 있는 정선일 집사는 요즘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지난 1. 17~23 극단 '우물가' 창작 뮤지컬 창단 공연 '그(He)'에서 주역 예수를 맡았을 때 과연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다. 하지만 정집사는 음악을 듣는 순간 "바로 나다"라는 판단에 공연이 임박해서는 하루 한 끼 정도의 식사로 갈비뼈 앙상한 예수 역을 훌륭히 해냈다. 예술과 성령의 만남으로 극이 끝나고 설문 조사 결과 "예수님과 가장 닮았다"는 관객들의 호평으로 뿌듯함을 맛보았다.

이렇듯 탄탄한 내실을 다진 동기는 '믿음의 선교단' 일원으로 9년째 봉사한 결과다. 주일 오후에는 농어촌 미자립 교회, 개척 교회를 우선으로 전국을 돌며 성극을 하는 숨은 봉사 정신 덕분일 것이다. 정 집사는 성극에 임할 때 테크닉보다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의지한단다.

정집사는 원래 가톨릭 집안에서 성장하였는데 성극(건너 가게 하소서, 다윗왕, 황제 등)에 출연하면서부터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다. 요즘도 대학로에서 극단 '말죽거리'의 '헌 집 줄게 새 집 다오'에 출연하고 있는데, 주야 총68회 공연에 매회 평균 관객 50여 명으로 대학로에서도 놀라고 있다.

끼는 곧 기(氣)이자 생명이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은 바로 기(氣)가 있기 때문이다. 문화 벤처 '감동 산업' 즉 그 끼로 정집사는 TV출연은 이제 부업이 되어버리고 문화선교 연극으로 외국 공연 등 금년 12월까지 스케줄이 꽉 차 있다. 우선 '그(He)'의 지방에서의 앵콜 공연 준비와 여름에 있을 소극장 뮤지컬(극단 말죽거리의 글쎄 그건 오해라니까요) 준비에 분주하다.

그의 바램이 있다면 성극 전용 공연장이 생기는 것이다. 정집사는 MBC 12기 탤런트로 데뷔하여, '갯마을, 몽실 언니, TV 시티, 모델' 등 다수의 드라마에 출연해 인기를 얻은 인물이다.

교우동정

▶ 결혼
- 김연수·이경아 집사 차남 성윤
- 정혁진·김영심(청1부)

▶ 소천
- 차종석 장로(차상면 집사 부친) / 42구역
- 김우악 성도(강옥희 집사 모친) / 38구역
- 이덕복 성도(이기원 집사 부친) / 68구역
- 박수옥 집사(정원경 집사 모친) / 33구역

▶ 이사
- 신인상·채영애 집사 /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우성A 609-1403 (0342-716-4347)
- 남미경A 집사 / 성남시 분당구 장안 건영A 109- 102 (0342-708-5726)
- 정철길·이지영 집사 / 동작구 신대방동 우성2차 101-1705

▶ 전근·동정
- 김우림 장로 / 한빛은행 강남지점장 발령
- 유재학 집사 / 삼성의료원 피부과의사, 성균관의대교수 발령
- 엄일용 집사 / 주님의교회 사무관리직 사임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 에서는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 다 함께 웃고,
힘든 일도 다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원고를 기다립니다.

교회소식

■ 제직회에서 알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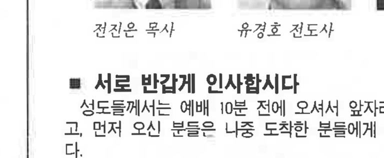
지난 1월6~7일 이틀에 걸쳐 개최된 제직회 세미나에서 다음 사항을 결의하였습니다.

1. 수요예배는 '수요성서강해' 시간으로 드립니다.
2. 성찬식은 격월로 짝수 달 마지막 주일에 있습니다.
3. 각종 헌신예배는 주일 저녁 찬양예배 시간에 드립니다.
4. 새교우 환영예배는 6개월마다 있으며, 새교우 초청 만찬의 시간은 매월 마지막 목요일에 있습니다.
5. 예배와 관련된 사항
   - 주일 낮 예배 안내는 시무장로, 안수집사, 권사, 협동장로, 서리집사가 A·B조로 나뉘어 격월로 담당합니다.
   - 주일 낮 예배기도는 시무장로, 안수집사, 권사, 협동장로가 번갈아 가며 맡습니다.
   - 주일 낮 성경봉독은 서리집사가 담당합니다.
   - 주일 저녁 찬양예배와 수요성서강해의 기도는 서리집사가 합니다
6. 연 2회 재정감사 지도가 있습니다.
7. 8월 한 달동안 국수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8. 매월 마지막 주일 찬양예배 시간에는 찬송을 작시·작곡한 분들의 신앙체험을 재현하는 '찬송 드라마'가 있습니다.
9. 담임목사와의 신앙상담은 목요일 오전 10시~12시 상담이 가능하며, 상담신청은 강정호 목사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10. 교역자의 교구담당은 2년으로 합니다.
11. 연말 정산을 원하는 교우는 헌금봉투에 주민등록번호와 헌금액수를 기재해야 합니다.

■ 신임 교역자 소개

전진은 목사와 유경호 전도사가 새로 교회를 섬기게 되었다. 전목사는 연세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장로회 신학대학원에 재학중이며 중등부 교육지도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대전신학교에서 교회사를 강의하고 있다. 유전도사는 계명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했으며 역시 장로회 신학대학원에 재학중이다. 그동안 주님의교회 초등부, 청년부, 4부성가대 등에서 총무로 봉사했으며 이번에 초등부 교육지도를 담당하고 있다.

한편 교회 사무직원으로 정운경 자매가 교회를 섬기게 되었다.



전진은 목사 유경호 전도사 정운경 자매

■ 서로 반갑게 인사합시다

성도들께서는 예배 10분 전에 오셔서 앞자리와 안쪽 좌석부터 앉아 주시고, 먼저 오신 분들은 나중 도착한 분들에게 반갑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2남선교회 친교모임

제2남선교회에서는 3월 20일(토) 오후 5시 주님의교회 식당에서 부부동반으로 올해 첫 친교모임을 갖는다. 가정 및 신앙생활에 도움되는 세미나도 가질 예정이며, 회원들의 많은 참석을 바라고 있다. 제2남선교회 회원자격은 49~53년 사이에 출생한 주님의교회 교인이다.

유머 한마디 · 형광등

도둑 이야기

시골 마을에 도둑이 들었다. 순진한 농부는 이 도둑이 자기를 해칠 것만 같아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그 광경을 본 도둑은 도둑 나름대로 이 농부가 고함을 칠 것만 같아서 무게 있는 소리로 농부에게 말했다.

도둑 : 닥치고 가만 있어!

농부 : 예! 시키는 대로 할 테니 목숨만 살려 주세요

(닭치고 가마니 쓰라고 했지...!).

그러자 겁에 질린 농부는 얼른 밖으로 나가서 닭장 속에 있는 닭을 한 마리 꺼내서 손으로 마구 치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헛간으로 가서는 가마니를 뒤집어 쓰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도둑은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 농부 앞에 가서 말했다.

도둑 : 닭을 왜 쳐?

농부 : 예! 알겠습니다(닭을 외치라고 그랬지).

닭 닭 닭 닭.......(자꾸 이상한 걸 시키고 그래).

의학상식

무좀

유재학 집사
(성균관의대 피부과)

무좀(족부백선)이란 발가락, 발바닥에 생기는 흔한 피부질환으로 허물이 벗겨지며 가려움이 심하고, 심하면 갈라져 쓰리기도 하다. 보통 지간형, 소수포형, 건조인설형 및 손발톱무좀으로 나뉘어지며 두 가지 이상의 형태가 같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다.

·지간형 무좀 : 발가락 사이가 허옇게 짓무르고 갈라지면서 가려움증과 냄새가 심하다.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에 많이 발생하는 무좀으로, 다른 발가락보다 사이가 좁아 통풍이 안되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발가락 사이에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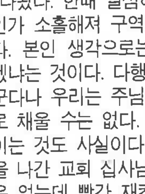
·소수포형 무좀 : 발가락과 발바닥에 작은 물집이 생기고 가려움이 심하여 수포가 터지면 진물이 나오거나 딱지가 앉아 습진성 병변으로 번지거나 이차적으로 세균이 감염되기도 한다.

·건조인설형 무좀 : 주로 발바닥에 비듬 모양의 두껍고 건조한 인설이 덮이고 심하면 발바닥이 갈라지고 피가 나오며 아프다.

·손발톱 무좀 : 곰팡이균이 손톱·발톱의 가장자리부터 안으로 침범해 들어가 손톱, 발톱이 두꺼워지며 색이 노랗게 탁해지고 쉽게 부스러진다.

무좀예방을 위해서는 항상 발을 깨끗이 하고, 땀을 흡수할 수 있는 면 양말을 신고 통풍이 잘되는 약간은 헐렁한 신발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치료에 흔히 사용되는 항진균제 연고는 하루 2~3회 6주 이상 꾸준히 발라주어야 하며 먹는 항진균제는 반드시 피부과를 찾아 곰팡이검사로 확진을 받은 다음에 사용해야 한다. 그 밖에 진물이 나오는 급성기에는 여러 약용 용액으로 습포요법을 하여 마른 상태로 바꿔주며 이차적인 세균 감염이 있으면 항생제 치료를 병용하고 건조인신형의 무좀에는 각질용해제가 도움이 된다. 무좀이 자주 재발하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증상만 없어지면 완치가 된 것으로 생각하고 대부분 치료를 중단하기 때문에 다시 습한 환경이 되면 피부 깊이 숨어 있는 곰팡이가 자라기 때문이다. 또한 발이나 손·발톱은 무좀 이외에도 한포진이나 접촉피부염, 건선 등 비슷하게 보이는 질환이 많이 때문에 항진균제 연고를 1주 이상 발라도 효과가 없는 경우는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발언대



흡연과 환경 오염

최상용 집사(32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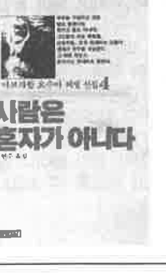
얼마 전 성도들의 모임에서 한 집사님께서 애써 남편을 모시고 나왔다. 한때 열심히 교회에 나오셨던 그 남편께서는 언제부터인가 소홀해져 구역모임 같은 곳은 더더욱 발길을 끊고 계시었다. 본인 생각으로는 담배도 못 끊었는데 교회 다닐 자격이 있겠냐는 것이다. 다행히 금연운동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더군다나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성전인 몸을 좋지도 않다는 연기로 채울 수는 없다. 또 우리 나라 교회에서 이에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일화에 한국에 파견된 외국인 선교사 마중을 나간 교회 집사님들이 아무리 기나려도 선교사같이 보이는 분은 없는데 빨간 재킷에 선글라스를 쓰고 시가를 물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사람이 바로 그들이 찾고 있던 분임을 알고 혼비백산했다 한다.

물론 성경이 기록될 시대에는 담배가 없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교회에서 금연의 불문율이 만들어질 시기에는 흡연이 얼마나 건강에 해로운가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을 때이다. 아마도 담배 피우는 행위가 어딘지 모르게 불량하고 사회적으로 모범이 되야 하는 우리로써는 용납되지 않아 그런 규제가 생긴지도 모른다. 게다가 길거리를 다니면서 가래를 뱉는 사람들은 대게 흡연하는 사람이 아닌가. 또 의식주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 때인데 담배를 피우는 것이 사치였을지도 모른다. 만약 우리 몸에 해로울 수 있는 기호품이 문제가 된다면 몇 잔이나 거리낌없이 마셔대는 커피는 어떤가? 이 세상에는 우리 건강에 나쁜 것이 너무나 많다. 이 모든 것에 대해 교회에서 공식 입장을 밝힐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한시라도 늦추어서는 안될 것이 환경 문제이다. 수질, 대기, 및 토양은 일단 오염되면 그 복원에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든다. 주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우리들과 우리들의 후손이 살아갈 하나밖에 없는 이 지구를 생각하면 안타깝다. 특히 자기 삶의 흔적을 안 남기든지 최소화하고 돌아가야 할 명제를 갖고 있는 우리로써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회적 측면에서 보아도 간접흡연의 문제점을 간과할 수는 없지만 흡연은 원인제공자인 자신에게 그 해가 돌아가지만 환경 오염은 타인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중독성이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피폐하게 할 수 있는 흡연이 좋다는 것은 아니다. 주님만을 따르겠다 하면서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의 믿음까지는 못 가더라도 아무리 끊기 어렵다 해도 이 하찮은 담배 정도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단지 이런 기호품들이 믿음을 토대로 그만 둘 수 있다면 바람직하겠지만 흡연 자체가 한시라도 주님에게 가까이 가는데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주위에 담배 피우는 성도가 있다면 그분들의 건강을 위해 끊을 수 있도록 빌 뿐, 이 행위 자체로 신앙의 척도를 가름하겠다는 생각은 우리의 뇌리에서 지워 버리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도 환경에 대한 관심을 범교회 차원으로 끌어올리자!

책 이야기

사람은 혼자가 아니다



본서의 저자 아브라함 요수아 헤셸은 이십 세기를 살다간 위대한 히브리 사상가요 랍비이다. 본서는 그의 여러 저서들 가운데서도 가장 널리 읽히고 있는 책들 가운데 하나이다. 요즘은 거의 매일 이 책을 대한다. 헤셸의 이 책은 나를 넓고 깊은 사상의 바다에로 떠있게 만든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은 누구나 히브리 사상을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며 그 결과 구약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이기에 이 책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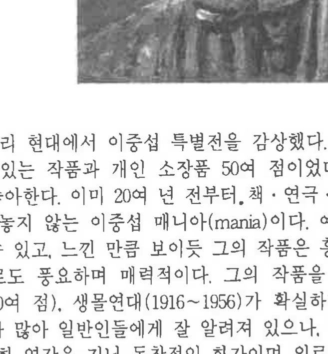
(김성식 전도사)

만화

김정희(청년2부)

그림 이야기

이중섭 특별전에 부쳐



며칠 전에 갤러리 현대에서 이중섭 특별전을 감상했다. 홍대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과 개인 소장품 50여 점이었다. 나는 이 작가를 매우 좋아한다. 이미 20여 년 전부터, 책·연극·영화는 물론 전시회도 빼놓지 않는 이중섭 매니아(mania)이다. 예술이란 아는 만큼 느낄 수 있고, 느낀 만큼 보이듯 그의 작품은 흥미진진하고 색채학적으로도 풍요하며 매력적이다. 그의 작품을 소장한 사람들이 많고(300여 점), 생몰연대(1916~1956)가 확실하며 친구들 중 생존 작가가 많아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으나, 내가 아는 이중섭은 특이한 영감을 지닌 독창적인 화가이며 외로움과 고뇌, 슬픔 등 애절한 삶을 희망과 환희로 승화시켰으며, 굵은 터치로 강력한 파워를 느끼게 한다. 철저하게 고독했기 때문에 미친 듯이 그렸는지도 모르며 제목이 말하듯 '흰 소', '금빛 소', '황소', '싸우는 소' 등 소를 즐겨 그렸다. 소를 그리기 위해 들판에 나가 하루종일 오두커니 소만 바라보다가 소도둑으로 오인받을 만큼 철저한 프로였는데 소는 바로 이중섭 자신이다. 최근엔 못으로 그린 은지화(담배를 쌌던 은박지) 2점을 평창동 가나 아트센터에서 감상할 수 있었다. 일반인들은 은지화나 소를 이중섭이 처음 그린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일찍이 나혜석과 같은 시기에 파리 유학을 했던 오산학교 스승 백남순 선생에게 사사받은 것이란 걸 밝혀두고 싶다. 이번에 전시된 연필 소묘화 자화상은 처음 공개된 작품이며, 너무 낡아 소장자의 희망대로 45 비스듬히 전시된 '흰 소'도 인상적이었다. 56년 뉴욕 현대미술관(MOMA)에 소장된 이중섭의 은지화 3점은 대여가 안되고 사진만 왔다. MOMA는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휘트니 미술관과 함께 미국 3대 미술관으로 꼽힌다. 이번 전시회는 내가 좋아하는 작가 이중섭을 그의 예술혼을 불태운 작품을 통하여 대면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였다. 향년 40세의 젊디 젊은 나이로 가고 싶지 않은 긴 여행을 떠난 천재 작가를 그리워 하며 '건축문화의 해'인 99년의 첫 나들이 관람료 3,000원이 아깝지 않았다. (조계현 성도)